

08

섬진강-탐진강유역 청동기문화의 전개과정

황 재 훈
충남대학교

- I. 머리말
- II. 섬진강 일대 유적 분포와 특징
- III. 탐진강 일대 유적 분포와 특징
- IV. 섬진강-탐진강유역 취락과 무덤의 전개
- V. 맺음말

섬진강-탐진강유역 청동기문화의 전개과정

황 재 훈 (충남대학교 고고학과)

I. 머리말

본 발표의 목적은 섬진강-탐진강 일대 청동기시대 유적의 전개과정과 성격을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섬진강-탐진강 일대 유적의 조사 현황을 정리하여 분포 밀도 및 입지 양상에 있어 몇 가지 특징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취락과 무덤의 시간성과 변천상을 검토하기로 한다. 남한 여타지역과 마찬가지로 섬진강 일대 청동기문화는 미사리유형을 비롯 이른 시기의 물질문화뿐만 아니라 휴암리-송국리유형 및 중기 이후 여러 물질문화가 공존하며 주변 지역과의 문화접촉을 통해 다양한 문화적 변이를 겪으면서 전개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본 발표의 말미에서는 주거 구조와 무덤 형식, 토기 양상, 방사성탄소연대 등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섬진강-탐진강 일대 청동기문화의 시간적 추이를 살피기로 한다. 아울러 섬진강-탐진강유역 청동기문화의 지역적 특징과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주변 지역과의 비교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에 섬진강 상류와 인접한 금강 상류 일대, 동부의 황강·남강유역 일대, 남부의 전남 남해안일대에서 조사된 중요 유적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II. 섬진강 일대 유적 분포와 특징

섬진강은 길이 222km, 유역면적 4,914km²로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큰 하천이다. 진안군 백운면 팔공산에서 발원하여 임실, 순창, 남원, 곡성, 구례, 하동을 지나 광양만으로 흘러들어간다. 주요 지류로 오수천과 요천, 보성강이 있는데 각각 순창군 적성면, 곡성군 곡성읍, 곡성군 오곡면에서 합류한다. 섬진강 본류와 지류 주변에는 구석기시대 이래 많은 유적이 형성되어 있는데 특히 청동기시대 취락과 무덤은 충적지 및 주변 낮은 구릉 일대에서 발견된다. 세부 지역별 유적의 특징과 문화적 성격을 변별하기 위해 아래에서는 지류를 기준으로 상류역의 임실지역, 중류역의 남원-순창-곡성-구례지역, 보성강유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섬진강유역의 취락과 무덤

1) 상류역

임실지역에서는 중기 이후의 취락만이 발견되고 있다(표 1). 외랑 유적에서는 (장)방형 주거지 20기가 조사되었다(그림 1). 일부 주거지 일부 주거지 내부에는 구덩이나 주혈 등이 시설되어 있는데 전형적인 타원형수혈과 기둥구멍을 갖춘 송국리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면적은 모두 20m² 이하의 소형에 해당하며, 짧게 외반된 구연의 호형토기, 내경도가 높은 내만구연발의 토기상을 보이는바 중기 늦은 시기로 판단된다. 갈마리 해평유적에서는 휴암리식과 송국리식 주거지 6기, 방형계주거지 8기가 조사되었다. 양자는 공간을 달리하여 분포하는데 방형계는 유적의 서편 구릉 사면, 휴암리식/송국리식은 동편 구릉 능선상에 조성되어 있다. 출토 토기 양상에서도 양자 간 차별성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에서는 직립구연의 공열토기와 구순각목토기, 나팔형으로 바라진 천발이 발견되는데 비해 송국리식 주거지에서는 짧게 직립하거나 외반된 구연의 호형토기, 내경도가 높은 내만구연발이 출토되어 양자 간 시간적 격차를 감지할 수 있다.

한편 임실 외랑2, 망월촌과 대곡리 유적에서는 중기 늦은 시기 토기 기형 및 제작 기법상의 변화가 관찰되는바 주목을 끈다. 짧게 직립하거나 외반하는 호형토기, 내경도 높은 심발형토기, 토기 외면의 빗질 또는 목리 정면 기법, 편평한 저부, 전용뚜껑의 등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는 정읍 상평동, 장수동, 고창 신대, 석교리, 봉산리 황산, 부곡리 연동, 삼인리 유적 등지의 송국리식 주거지에서 다수 확인되는 요소들인바 중기 늦은 시기 전북 서부지역의 토기제작 기술의 수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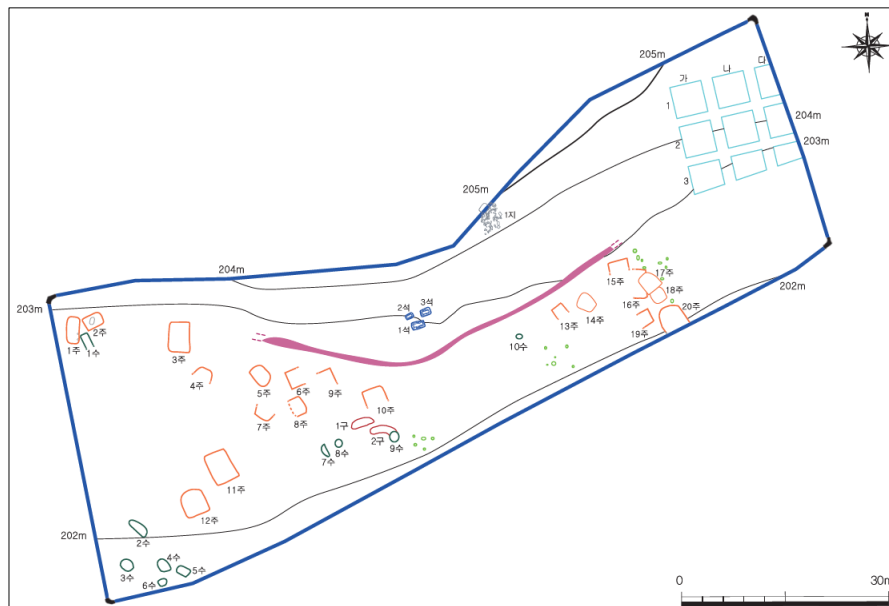


그림 1. 임실 외랑2 유적의 유구분포도

표 1. 섬진강 상류역 청동기시대 취락 조사 현황 일람(휴암: 휴암리식 방형, 송국: 송국리식 원형)

연번	유적	수량	입지	주거(시기)	토기	탄소연대(bp)
1	임실 외량2	20	구릉 사면	장방형(중기)	외반구연호, 내만구연발	3호: 2500±40 10호: 2410±30 11호: 2470±40 13호: 2550±30 14호: 2490±40 16호: 2520±30 20호: 2430±30
2	임실 갈마리 해평	14	구릉 능선~사면	휴암/송국/방형(중기)	공열, 구순각목, 외반구연호, 내만구연발	6호: 2490±30
3	임실 도인리	7	구릉 능선	송국(중기)	외반구연호, 내만/직립구연발	2호: 2600±50 6호: 2580±50 7호: 2570±50
4	임실 대곡리	5	구릉 정상~사면	휴암/송국(중기)	직립/외반구연호	1호: 2510±25 3호: 2480±25
5	임실 망월촌	5	구릉 사면	휴암/송국(중기)	외반구연호, 내만구연발, 뚜껑	.
6	임실 덕치리	1	구릉 사면	송국(중기)	.	.

다음으로 무덤의 분포와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표 2). 지금까지 불과 2개소의 유적 13기의 유구만이 조사되어 섬진강 상류일대 무덤의 지역적 특징이나 시간성을 파악하기는 다소 어려운 실정이다. 다행히 외량2 취락에서는 주거영역과 매장영역이 동일 지점에서 확인되어 무덤군의 시간성을 살펴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준다(그림 1). 전술하였듯 외량2 유적에서 발견된 장방형 주거지는 유구유물상을 종합하여 볼 때 중기 늦은 시기로 판단된다. 무덤군은 등고선방향과 나란하게 호형으로 조성된 길이 57m, 폭 1.3m의 석렬유구를 경계로 북편에 위치한다. 조사지역의 북쪽 경계부에 지석묘 1기가 위치하며 남서쪽으로 18m 떨어져 석관묘 3기가 위치한다. 지석묘는 상석이 이동되고 하부구조의 유실이 심해 정확한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매장주체부는 지상 위석식 구조로 보이며 주변으로 포석형 묘역시설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석관묘는 등고선과 나란한 방향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모두 지하 판석형이며 상부구조로 2~3층의 개석과 봉분이 시설되어 있다. 2호에서 종방향 목리흔이 남아있는 동체편이 확인되는데 주거지에서 출토되는 무문토기의 정면 기법과 동일하다. 3기 모두에서 탄소연대 측정이 이루어졌는데 2390~2470 bp값이 얻어졌다. 지석묘의 구조, 석관묘 출토유물과 탄소연대 등을 종합해볼 때, 외량 취락의 늦은 시기 조영된 무덤군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지석묘와 석관묘가 동일 지점에서 공존하는 사례는 임실 운정리유적에서도 확인된다. 구릉 정상 평탄부에서 지석묘 5기와 석관묘 4기가 분포하는데 지석묘는 남북 2열, 석관묘는 동서 2열로 배치되어 있다. 지석묘는 1~4개 정도의 지석이 놓인 기반식으로 이중 2기에서는 지하 토광형, 위석형 매장주체부가 확인된다. 4기의 석관묘 중 보존상태가 가장 양호한 1호의 경우 수매의 개석, 판석형 매장주체부, 바닥시설(토기) 등이 확인된다. 지석묘와 석관묘의 구조, 출토유물 양상을 통해 볼 때 운정리 유적 또한 외량 무덤군과 비슷한 중기 늦은 시점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표 2. 섬진강 상류역 일대 청동기시대 무덤 조사 현황 일람

연번	유적	수량	입지	종류 및 구조		출토유물	탄소연대(bp)
1	임실 외랑2	4	구릉 말단~평탄	지석묘1	포석형 묘역? 위석형	.	1호: 2470±30 2호: 2450±30 3호: 2390±30
				석관묘3	다중개석, 봉분 지하 판석형 석관	무문토기	
2	임실 운정리	9	구릉 정상	지석묘5	지하 토광(이단) 위석형(기반석)	.	.
				석관묘4	지하 판석형 석관	내만구연발, 일단경축	

2) 중류역

섬진강 중류, 오수천~요천일대의 청동기문화는 여타지역에 비해 매우 풍부하다. 순창 원촌에서는 미사리유형, 남원 고죽동에서는 역삼동/혼암리유형, 곡성 오지리와 대평리를 비롯한 여러 유적에서는 휴암리단계의 취락들이 발견되었다(표 3). 특히 순창 백산리, 순천 죽내리유적에서는 이 일대 전-중기 전환기의 유구유물 양상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순창 백산리에서는 (장)방형계 주거지 5기와 휴암리식 방형주거지 1기가 조사되었다. 장방형계인 3호에서는 단사선문토기와 구순각목토기, 직립구연발이 출토되었으며 2765±25bp의 탄소연대값이 얻어져 방형계가 휴암리식 주거지에 선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모든 주거지의 면적이 20m² 이하의 소형만이 구성되어 있어 전기 취락으로로 확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백산리 방형계 주거지들은 전기 후반의 역삼동/혼암리식 장방형주거지에서 중기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형태로 생각된다.

순천 죽내리에서는 2기의 주거지가 발견되었는데 중기 이른 시기의 토기상을 살필 수 있다. 두 주거지는 중첩을 이루는데 1호는 휴암리식 방형, 2호는 유실이 심하지만 방형계로 추정된다. 전자에서는 긴경부의 직립구연호, 후자에서는 이중구연단사선, 공열토기 등이 출토되는바 휴암리식 주거지보다 다소 이른 시기로 생각된다.

곡성 오지리유적은 휴암리식 방형주거지만으로 구성된 단일 취락으로 5호를 제외한 19기의 주거지 모두 타원형구덩이 양단에 맞물려 기둥구멍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적 통일성이 보여진다. 휴암리식 주거의 특성상 토기유물이 거의 발견되지 않아 시간적 위치를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공열토기, 내경도가 크지 않는 직립구연 심발, 직립구연호, 나팔형으로 바라진 천발이 출토되는바 중기 전~중엽경 조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구례 봉북리유적의 유구유물 양상은 오지리유적과 상당히 흡사한바 거의 비슷한 시점에 조성된 취락으로 판단된다.

이상 살펴본바와 같이 중류역 일대에서는 전기~중기 이른 시기에 속하는 미사리유형, 역삼동/혼암리유형, 휴암리단계 취락들이 분포하는데 상류 일대와는 달리 중기 늦은 시기의 (장)방형계 주거지나 송국리식 원형주거지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시기별 유적분포의 특징은 섬진강 일대 청동기문화의 확산과 전개상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3. 섬진강 중류역 청동기시대 취락 조사 현황 일람

연번	유적	수량	입지	주거(시기)	토기	탄소연대(bp)
1	순창 백산리	5	충적대지	장방형/휴암(중기)	구순각목, 단사선	3호: 2765±25
2	순창 원촌	2	충적대지	장방(전기), 휴암(중기)	돌대문	.
3	순창 동촌	2	구릉 사면	장방형(중기)	.	.
4	남원 고죽동	3	구릉 사면	(세)장방(전기)	구순각목공열, 단사, 구순각목 이중구연단사, 이중구연단사공열, 직립구연호	.
5	남원 광평	2	구릉 사면	중기(휴암B)	직립/내만구연발	.
6	곡성 대평리	29	충적대지	장방형/휴암(중기)	.	.
7	곡성 오지리	20	충적대지	휴암(중기)	공열, 직립구연, 직립구연호	4호: 2670±60 6호: 2650±50 12호: 2640±60 14호: 2710±50
8	구례 봉북리	3	충적대지	휴암/방형(중기)	공열, 내만구연발. 직립구연호,	2호: 2960±80 3호: 2560±50
9	순천 죽내리	2	구릉 사면	방형/휴암(중기)	이중구연단사, 공열 직립구연호	1호: 2790±130

섬진강 중류역에서 발굴된 청동기시대 무덤은 지석묘와 석관묘로 상류역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현재 4개소의 유적 16기의 유구가 조사되었다(표 4). 특히 섬진강 일대 무덤에서는 묘역시설을 갖춘 지석묘가 많이 발견되는데 이러한 구조적 속성은 지석묘의 시간적 변화상을 고찰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또한 금강유역을 비롯 황강-남강유역 지석묘와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는바 섬진강유역 지석묘의 전개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묘역시설과 지석, 매장주체부의 구조에 기초하여 섬진강 중류 일대 무덤의 지역적 특징과 시간적 변화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남원 용정동에서는 장축 6.3m, 단축 4.0m 규모의 묘역시설이 설치된 묘역식 지석묘가 조사되었다. 매장주체부는 이른바 유사석곽형(하인수 1992)으로 할석을 지상에 연접하여 놓아 장방형의 공간을 마련한 구조를 보인다. 이 같은 형식의 지석묘는 황강-남강유역에서 다수 발견되는데 특히 거창 산포 지석묘군에서는 매장주체부 및 세부 구조의 변화과정을 살필 수 있다. 우선 산포 지석묘군에서의 중복관계를 통해 지상의 유사석곽형의 매장주체부가 지하 할석형 석관에 비해 시기적으로 후행한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가장 늦은 시기에는 할석을 지상에 간단히 둘러놓은 방식의 위석형으로 변화한다. 이와 연동하여 묘역시설은 대형의 적석형에서 중소형의 포석형으로 축소되고 간략화되는 방향성을 갖는다. 따라서 용정동 지석묘는 산포 지석묘군의 2단계 이른 시기와 비슷한 시점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순창 내동리 구릉 사면에서 발굴된 2기의 지석묘는 후대 재사용으로 인한 하부구조의 훼손으로 정확한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용정동 지석묘와 구조적으로 유사한 측면이 관찰된다. 특히 1호의 경우 지상 매장주체부 구조이며 상석 아래 4기의 지석과 함께 포석형 묘역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바 용정동 지석묘와 동일한 시점이거나 약간 늦은 형식으로 볼 수 있겠다.

순창 무수리 지석묘군에서는 지석묘 4기와 석관묘 5기가 조사되었는데 양자는 15m 정도의 거리

를 두고 각각 북동쪽과 남서쪽에 분포한다. 상석이 놓인 1호의 경우 포석형 묘역시설을 갖춘 위석형으로 보이며 나머지 4기는 지하 할석형 석관으로 상부에는 평면 타원형 묘역시설 및 구획석이 설치되어 있다. 한편 석관묘는 지하 할석형으로 할석과 천석을 혼용하여 1~2단 정도 뒹어 쌓아 매장주체부를 구축하였다. 무수리에서 조사된 묘역식 지석묘는 섬진강 본류 일대에서는 가장 이른 구조로 볼 수 있는데 진안 안자동 1·9호나 합천 저포리 8호와 같은 전기 후반의 지석묘보다는 한 단계 낮은 중기 전반 즈음의 무덤으로 비정할 수 있겠다.

구례 봉북리에서 조사된 3기의 지석묘는 상석 아래 입방형의 중대형 석재 1~4개 정도를 상석 가장자리에 놓은 위석식의 구조로 낮은 시기에 해당한다. 다만 3호의 경우, 일부 묘역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아 나머지 1·2호에 비해 약간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섬진강 중류역 일대 청동기시대 무덤 조사 현황 일람

연번	유적	수량	입지	종류 및 구조		출토유물
1	순창 내동리	2	구릉 사면	지석묘2	포석형 묘역 위석형	·
2	순창 무수리	9	충적대지	지석묘4	포석형 묘역, 구획석 지하 할석형 석관	공열토기
				석관묘5	지하 할석형 석관	·
3	남원 용정동	2	충적대지	지석묘1	포석형 묘역 위석형	·
				석관묘1	지하 판석형 석관	
4	구례 봉북리	3	충적대지	지석묘3	위석형, 기반식	일단경축

3) 보성강유역

순천 대곡리 도룡유적은 휴암리식/송국리식 주거지 20기와 장방형주거지 50여기가 조사된 섬진강 일대 최대규모의 취락이다. 주거지의 중복관계에 기초하여 크게 2단계 구분할 수 있는데 하층에는 휴암리식 방형, 송국리식 원형, 장방형주거지 세 형식이 공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상층에는 장방형주거지만이 확인된다(이근욱 1993). 안재호(1992)는 토기의 기형과 주거지 구조의 변화상을 통해 편년을 실시하였는데, I 기에는 공열토기, 내만 또는 직립 구연의 심발, 경부가 긴 호형토기가 주로 확인되지만 II기가 되면 심발의 점유율이 낮아지면서 송국리식 외반구연토기의 비중이 높아지며 호의 구연부도 짧아지는 변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대곡리II기에 속하는 48호 주거지의 탄소연대 측정값인 2270±90 BP는 보성강유역 청동기시대 하한에 있어 중요한 절대연대 기준을 제공한다.

많은 주거지가 확인될 뿐만 아니라 평면형태 및 내부 구조, 토기와 석기 형식에 있어 다양한 변이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여타 유적에 비해 존속기간이 짧은 것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기 역삼동/혼암리유형으로 판정할 수 있는 유구유물 양상은 뚜렷하지 않지만 일부 주거지에서는 순창 백산리나 순천 죽내리와 같은 전-중기 전환기의 과도기적 형태를 살필 수 있다. 해당 주거지가 많지는 않지만 서5호, 서9호, 서53호, 광22호, 광27호 주거지의 경우 경부가 긴 직립구연의 호형토기와 공열토기가 확인되는바 도룡 취락에서 가장 이른 시기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가장 낮은 시기의 문화내용도 살필 수 있는데 특히 토기상에 있어서의 변화가 매우 다채롭다. 예컨대 축약

된 굽 없이 편평한 저부에서 완만한 사선을 이루어 동체부와 연결되며, 동최대경이 중위에 형성되어 장동형의 기형을 보이는 기형의 변화를 보인다. 호형토기의 구연은 짧게 외반 또는 직립하며 발형토기의 내경도는 점차적으로 높아진다. 또한 토기 외면에는 빗질 정면, 목리 조정과 같은 정면 수법이 두드러지기 시작한다. 이 같은 기형과 정면 기법의 변화는 영산강유역 중기 늦은 시기 송국리식 토기 제작기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추가적으로 전용뚜껑의 등장은 점토대토기문화와의 관련성을 엿볼 수 있는 표지유물로 생각된다.

곡성 유정리 유평에서는 방형계 주거지 2기와 송국리식 원형 2기가 조사되었다. 양자 모두 짧게 직립하거나 외반구연된 호형토기, 내만구연토기 등이 공반하고 있으며 석검, 석도, 석촉의 형식 및 출토양상도 공통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양자간 시간적 격차는 없어 보인다. 화순 북교리에서 조사된 송국리식 원형주거지 또한 동일한 토기양상을 보인다.

한편 보성강 상류의 보성 옥평리 유적에서는 역삼동식 주거지 1기가 조사되었는데 보성강유역 전기 문화의 확산과정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면적 83m²의 대형 세방장형으로 내부에는 무시설식 노지와 저장공, 벽구 등이 시설되어 있다. 2770±50 bp의 탄소연대 값이 산출되었으며 구순각목이중구연단사선문, 이중구연단사선문이 시문된 직립구연의 발형토기 등의 문화내용을 종합해볼 때 옥평리 주거지는 탐진강유역 전기 문화와의 관련성을 상정할 수 있겠다.

표 5. 보성강 일대 청동기시대 취락 조사 현황 일람

연번	유적	수량	입지	주거(시기)	토기	탄소연대(bp)
1	곡성 유정리 유평	4	구릉 사면	방형/송국(중기)	외반구연호	.
2	순천 대곡리	72	충적대지	장방형/휴암/송국(중기)	공렬, 직립구연발, 직립구연호, 내만심발, 외반구연호, 뚜껑	10호: 2380±100 48호: 2270±90
3	화순 북교리	2	충적대지	송국(중기)	외반구연호	2950±120
4	보성 용정리 활천	2	구릉 정상	방형(중기)	.	수혈: 2340±50
5	보성 거석리 구주	1	구릉 사면	휴암(중기)	.	1호: 2560±50, 2420±50
6	보성 옥평리	2	구릉 정상	장방형(전기)	이중구연단사선공렬, 구순각목이중구연단사선	1호: 2770±50

섬진강 일대에서 가장 많은 수의 지석묘가 분포하는 지역은 보성강유역인데 80~90년대 동북대과 주암대 수몰지구, 호남고속도로 확포장공사구간 발굴조사 등을 통해 500여기가 넘는 무덤이 조사되었다(표 6). 보성강유역은 금강 상류-섬진강 본류, 황강·남강의 낙동강유역, 영산강-탐진강유역, 그리고 남해안지역으로 연결되는 청동기문화의 가교 역할을 하는 지점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섬진강 일대 청동기문화의 전개과정을 살피기 위해서는 보성강유역 지석묘의 지역적 특징과 시간적 변화상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아래에서는 보성강 일대 지석묘군의 입지와 분포 양상, 상·하부 구조, 출토유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지석묘군은 동북천이 합류되는 보성강 중류역에서 가장 높은 군집밀도를 보인다. 섬진강 본류역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지석묘군은 충적대지와 곡간평지에서 열을 지어 분포하는데 일부는 구릉지대와 산사면에 입지한다. 후술하겠지만 이 같은 입지의 차는 지석묘 구조의 시간성을 강하게 반영

하는데 예컨대 충적대지에 입지하는 이른 시기 지식묘는 매장주체부의 보호를 위해 묘역시설의 구축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구릉지대에 입지하는 늦은 시기 지식묘는 상대적으로 지형적 문제의 위험도가 낮은바 점차적으로 묘역시설보다는 지식의 역할을 증대시키면서 기반식으로 변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식묘의 시간적 변화과정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매장주체부, 묘역시설, 지식 등의 세부 구조를 면밀히 분석되어야 하며 아울러 배치패턴이나 분포밀도의 추이에도 주목해야 한다.

순천 우산리 내우와 우산리, 죽산리 다군 지식묘군은 30기 이상의 많은 무덤이 조사되었고 하부 구조의 변이도 다양하여 보성강유역 지식묘의 변화상을 살피기에 적합한 고고 자료로 판단된다. 또한 지식묘는 상석이나 묘역부와 같은 상부구조의 공간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며 선축된 무덤을 고려해야 하는바 집단묘역의 조성시 전체적인 기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군집밀도가 높은 무덤 군일수록 일정한 방향으로의 축조순서가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보성강유역 최대 지식묘군인 우산리 내우유적은 묘역시설과 지식의 형태, 매장주체부의 축조방식 및 장축방향, 마제석검의 형식 및 출토유물 양상을 종합하여 볼 때 북쪽 무덤열에서 남쪽 방향으로 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영문 1999, 황재훈 2006, 2012, 김승옥 2007). 이 같은 무덤의 축조순서에 근거하여 유구유물의 시기별 변화상을 파악할 수 있는 여러 지식묘군을 종합해보면 크게 4단계의 계기적인 변천상을 설정할 수 있다.

1단계의 지식묘는 보성강 중류역의 일부 지식묘군에서만 발견되는데 장방형 묘역시설을 갖춘 지하 할석형 매장주체부 구조를 보인다. 2단계부터는 무덤의 구조적 변이가 다양화되고 다층화 된다. 1단계 매장주체부의 구축은 석재를 뉘어쌓는 방식만이 사용되었지만 2단계부터는 횡적과 수적을 혼용하는 방식이 더 많이 발견된다. 묘역시설의 평면형태는 점차 타원형의 비중이 증가하며 적석부 내에는 상석의 가장자리를 받치는 1~3개 정도의 지석이 관찰되기도 한다. 3단계는 새로이 판석형 매장주체부가 등장하지만 여전히 할석형과 혼축형의 비중이 더 높다. 상석을 받치는 지식의 개수는 보다 증가하며 크기도 더욱 커지는데 이 같이 지석이 뚜렷한 지식묘일수록 묘역시설은 축소되어 있다. 3단계 또 다른 특징은 출토유물에서도 찾을 수 있다. 비파형동검, 마제석검과 석촉 등 무기류 부장이 주를 이루는 1~2단계와 달리 삼각형석도, 유구석부, 석창 등 농공구가 발견되기 때문이다. 이상 3단계 유구유물상의 변화의 주요 원인은 송국리문화의 영향에서 찾을 수 있다. 예컨대 이 시기 지식묘 매장주체부에서 보이는 판석형 석관과 이단토광의 구조는 금강유역 송국리형 묘제의 선택적 수용(김승옥 2001)에 의한 현상일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이른 시기 선형으로 분포되었던 무덤열은 점차적으로 3~7 정도의 무덤군이 환상으로 배치되기 시작한다. 한편 4단계로 향할수록 위석형 구조가 다수 발견되는데 이는 묘역시설의 간략화와 지식의 뚜렷화라는 이원적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전술하였듯 거창 산포, 함천 저포리 지식묘군 등 강-남강유역에서 다수 발견되는 유사석곽형 지식묘(하인수 1992)는 지상식으로 장방형 매장주체부를 이룬다. 그런데 유사석곽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실제 적석 묘역시설의 중앙부에 매장 공간을 마련한 구조이다. 따라서 묘역시설의 적석부가 낮아질수록 매장주체부 또한 알아지며 묘역부가 간략화되면서 매장주체부는 평면 타원형의 연결된 위석식으로 변화하며 최종적으로 분리된 위석식 구조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표 6. 보성강 일대 청동기시대 무덤 조사 현황 일람

연번	유적	수량	입지	종류 및 구조	출토유물
1	곡성 연화리	4	층적대지	포석형 묘역 지하/반지하 할석/판석형 석관 할석/혼축 석관묘, 옹관묘	일단병검, 유경석검, 석촉, 곡옥
2	곡성 현정리	13	층적대지	포석형 묘역 지하 할석형 석관, 기반석	구순각목공열, 유경석검, 석촉, 석도, 석검
3	곡성 유정리 유평	9	구릉 사면	포석형 묘역 지하 할석형 석관 할석/혼축/판석 석관묘(묘역)	일단병검, 유경석검, 석촉, 석착, 석부
4	곡성 공북리 구룡3	13(2)	층적대지	포석형 묘역 지하 할석형 석관	일단병검, 석촉, 석부, 검파두식
5	곡성 공북리 구룡2	15(3)	층적대지		
6	곡성 공북리 구룡1	7(1)	층적대지		
7	곡성 연반리 전기	2	산기슭	포석형 묘역, 구획석 기반석	무문토기, 뚜껑, 석도, 석부
8	곡성 연반리 다	4(3)	층적대지	위석형, 기반석	·
9	곡성 연반리 가	4(3)	산기슭		석부
10	순천 대치리	12	층적대지	포석형 묘역 지하 할석/혼축/판석형 석관 할석/혼축/판석 석관묘	일단병검, 유경석검, 석촉, 석착
11	순천 요곡리 오원 다	1	산기슭	구획석 지하 할석형 석관 위석식, 기반석	·
12	순천 요곡리 오원 나	5	산기슭		·
13	순천 요곡리 오원 가	7(9)	산기슭		삼발형토기, 석부
14	순천 비룡리 나	5	구릉 사면	포석형 묘역 지하 할석형 석관 위석형, 기반석	·
15	순천 비룡리 가	1	층적대지		·
16	순천 광천리 원동	6(2)	층적대지	지하 할석형 석관	·
17	순천 대광리 신기	19	층적대지	포석형 묘역 지하 할석/혼축형 석관 위석형(묘역), 기반석(묘역)	적색마연토기, 석촉, 유구석부
18	순천 오봉리 아	15	층적대지	포석형 묘역 지하 할석/혼축형 석관 위석형, 기반석(묘역)	적색마연토기, 일단병검, 유경석검, 석촉, 석도, 석착, 관옥
19	순천 오봉리 라	34(15)	층적대지		
20	순천 오봉리 다	14	산기슭		
21	순천 신평리 금평	12	층적대지	포석형 묘역 지하 할석/혼축형 석관	일단병검, 석촉, 석도
22	순천 대곡리 한실	3	층적대지	포석형 묘역 지하 할석/혼축형 석관	석촉
23	순천 덕산리 죽산	8	산기슭	지하 할석/혼축형 석관	석촉
24	순천 우산리 곡천	16(14)	산기슭	포석형 묘역 지하 할석/혼축형 석관 위석형, 기반석	일단병검, 석촉
25	순천 대곡리(대한)	30(4)	구릉	포석형 묘역 지하 할석/혼축형 석관	유경석검, 석촉

연번	유적	수량	입지	종류 및 구조	출토유물
26	순천 대곡리 도릉	15	층적대지	포석형 묘역 지하 할석/혼축형 석관 위석형, 기반식	석촉, 석도
27	순천 우산리 내우	70(58)	구릉 대지	적석형/포석형 묘역 지하 할석/혼축/판석형 석관 위석형, 판석 석관묘	비파형동검, 일단병검, 유경석검, 석촉, 유구석부, 석도
28	순천 우산리	42(40)	구릉 사면	포석형 묘역 지하 할석/혼축형 석관 할석/혼축/판석 석관묘 위석형(묘역), 기반식(묘역)	일단병검, 유경석검, 석촉, 석도, 석착
29	순천 월산리 반월	10	구릉	포석형 묘역 지하 할석/혼축형 석관	.
30	순천 월산리 사비	13	구릉 대지	지하 할석/혼축형 석관 위석형, 기반식	일단병검, 석촉, 석도, 방추차
31	보성 덕치리 신기	26(15)	구릉	적석형/포석형 묘역 지하 할석/혼축형 석관 위석형	비파형동검, 일단병검, 유경석검, 석촉, 유구석부, 석착, 석도
32	보성 죽산리 하죽 다	40(31)	층적 대지	적석형/포석형 묘역 지하 할석/혼축형 석관 위석형, 기반식	일단병검, 유경석검, 석촉, 유구석부, 석착, 석도, 방추차
33	보성 죽산리 하죽 나	15	층적 대지		
34	보성 죽산리 하죽 가	11	층적 대지		
35	화순 창랑리 창랑	14	구릉 사면	포석형 묘역 지하/반지하 할석/혼축형 석관	일단병검, 유경석검, 석촉
36	화순 장학리 장항	3	층적 대지	포석형 묘역 지하 혼축형 석관	적색마연토기, 채문토기, 석검, 어망추
37	화순 월산리 월평	16(2)	산기슭	포석형 묘역, 지하 할석형 석관	석도, 석착
38	화순 독상리 독상	3(2)	층적 대지	.	.
39	화순 절산리 장선	9	층적 대지	포석형 묘역 지하 할석형 석관	석촉, 관옥
40	화순 사수리 대전	27(16)	구릉 사면	지하 할석형/혼축형 석관 위석형	일단병검, 석촉, 석도
41	화순 복교리 복교	13(8)	층적대지	포석형 묘역 구획석 지하 할석형 석관 위석형	석촉, 석부, 어망추
42	보성 봉갑리 고수월	14	구릉 사면	지하 할석형/혼축형 석관 위석형	석촉, 석도
43	보성 시천리 살치 나	17(16)	구릉 사면	포석형 묘역 지하 할석/혼축/판석형 석관 위석형, 기반식	일단병검, 석촉, 유구석부, 어망추
44	보성 시천리 살치 가	23(14)	평지		
45	보성 거석리 구주	4	산기슭	.	.
46	보성 용정리 활천	15	구릉 정상	포석형 묘역 지하 할석형 석관 할석 석관묘, 위석형(기반식)	관옥
47	보성 도안리 안적	33(3)	구릉 사면	할석 석관묘	석도

Ⅲ. 탐진강 일대 유적 분포와 특징

탐진강은 전라남도 3대강의 하나로 유역면적 862.5km², 총연장 56km에 이른다. 영암군 금정면과 장흥군 유치면의 경계에 위치한 국사봉에서 발원하여 장흥, 강진을 지나 남해 도암만으로 흘러든다. 유치천, 움천천, 부산천과 금강천, 강진천 등 크고 작은 지류들은 유치면, 장흥읍, 강진읍을 지나면서 합류한다. 유역에는 용반평야, 부산평야, 장흥평야, 강진평야를 형성하고 있는데 청동기시대 취락과 무덤은 충적대지와 낮은 구릉 일대에 분포한다. 지류를 기준으로 상류역의 유치천~움천천 일대, 중하류역의 평화천과 금강천~도암만 일대로 구분하여 세부 지역별 유적 분포와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상류역

유치천 일대 구릉 말단부의 평탄부와 충적대지에서는 많은 수의 유적이 조사되었는데 신평과 갈두 유적은 탐진강 일대 가장 큰 취락에 해당한다(표 7). 양자는 약 3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두 유적 사이와 주변의 공간평지에는 다수의 지석묘가 밀집 분포하고 있다. 두 유적 모두 휴암리식과 송국리식 주거지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 지점 내 생활영역과의 공간을 구분하여 무덤영역을 조성한 중기 이후 취락 구조의 정형성이 살펴진다. 그런데 양자는 주거 형식과 주거지의 배치형태, 토기 기형과 정면 기법에 있어서의 비율적 차이가 관찰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러한 편차는 두 유적 간 시간적 선후관계, 시기별 존속기간의 차이와 관련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갈두 취락은 동쪽부터 서쪽 방향으로 갈두 가지구, 갈두 지석묘 가군, 갈두 나지구로 구분할 수 있다(그림 1). 충적대지상에 위치한 갈두 가지구와 나지구의 주거지는 열을 지어 배치하는 반면 중앙의 갈두 지석묘 가군 동편의 주거지는 구릉 말단부에서 2~3기씩 군집하는 분포양상을 보인다.



그림 2. 갈두유적의 유구분포도

가지구에서는 16기가 조사되었다. 3기만이 송국리식 원형주거지이며 나머지는 모두 (말각)방형계이다. 주거지에서는 완제품 또는 반제품의 석축과 석부를 비롯하여 석재, 선형석기, 격지 등 석기제작관련 유물이 출토품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소량 출토되는 토기의 대부분은 축약된 굽이 형성된 무문토기의 저부이며 직립구연 호형토기, 내만구연 심발의 파편이 일부 확인된다. 나지구에서는 19기가 조사되었는데 4호를 제외하면 모든 주거지가 휴암리식 방형주거지에 해당한다. 주거지의 형식과 배치패턴, 토기 형태와 석기 구성에 있어 가지구와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두 지점의 (말각)방형계 주거군은 약간의 거리를 두고 조성된 동시기 취락으로 볼 수 있으며 송국리식 원형주거지와는 약간의 시차가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

지석묘 가군의 동편 구릉 사면과 말단부에서는 10기의 주거지가 조사되었다. 전술하였듯 가·나지구의 주거지 배치와 달리 2~3기가 군집되어 있으며 기형을 알 수 있는 토기편이 상당수 출토되어 주목을 끈다. 후대 삼국시대 주거지 및 고분들과 중복된 탓에 주거지의 유실이 심한 편이나 방형계가 주를 이루고 있는 점은 갈두 유적 전체적인 주거 양상과 대차 없다. 그런데 출토 토기에 있어서는 명확한 차이가 감지된다. 구연이 강하게 외반구연 호형토기, 원형점토대토기, 내만구연발 등이 발견되었는데 대부분의 저부는 축약된 굽 없이 평저 형태이며 동체 외면에는 빗질 정면 흔적을 관찰된다. 후술한 신평유적의 유구유물 양상을 통해 더욱 명확해 지겠지만 이러한 측면은 갈두 취락의 시간성과 결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51기의 주거지가 조사된 신평유적은 갈두 취락과 달리 송국리식 원형 비율이 높는데 휴암리식 21기, 송국리식 30기가 확인된다. 취락은 구릉 사면부와 평탄지에 입지하는데 갈두 지석묘 가군 취락과 유사하다. 휴암리식과 송국리식 주거지는 유구배치나 출토유물에 있어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차이가 감지된다. 휴암리식은 2~5기의 주거지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등고선을 따라 동서방향으로 열을 지어 배치되는 반면, 송국리식은 4~7기가 반원형 또는 타원형을 그리면서 군집을 이룬다.

양자의 토기상도 뚜렷한 대조를 보이는데 전자에서는 주로 석기제작관련 유물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소량의 토기편의 경우 대부분 축약된 굽이 형성된 심발과 직립구연의 호형토기만이 확인된다. 이에 반해 후자에서는 (말각)평저에 짧게 외반한 호형토기와 내경도가 강한 심발이 발견되는데 토기 외면에는 대부분 빗질 정면 흔적을 관찰할 수 있다.

이상 두 유적의 입지와 주거지 배치패턴, 출토유물 양상을 종합하여 갈두와 신평 취락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종합해보자. 우선 갈두 나·가 지구 충적대지를 중심으로 주거지가 조성되기 시작(갈두 I기)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구릉지역으로 확대(갈두 II기)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신평 취락은 갈두 지석묘 가군 동편의 취락과 대체로 병행하거나 약간 앞서는 것으로 보이는데, 즉 갈두 II기 즈음 신평 유적에서도 휴암리식 주거지가 조성(신평 I기)되며 얼마지 않아 송국리식 원형주거지가 주를 이루는 취락으로 변모(신평 II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7. 탐진강 상류역 일대 청동기시대 취락 조사 현황 일람

연번	유적	수량	입지	주거(시기)	토기	탄소연대(bp)
1	장흥 신평	51	구릉 사면~평지	휴암/송국(중기)	직립/외반구연호, 직립/내만구연발	1호: 2520±60, 2520±60 2호: 2450±80 3호: 2560±40, 2570±80, 2680±80 14호: 2410±40, 2420±40, 2470±40 21호: 2490±60, 24호: 2460±60 27호: 2530±40 40호: 2560±80
2	장흥 갈두 가	16	층적대지	휴암/송국/ 장방(중기)	직립/외반구연호, 직립/내만구연발, 점토대토기	5호: 2280±40 8호: 2520±40
	장흥 갈두 나	19	층적대지			
	장흥 갈두 지식묘 가	10	구릉 사면~평지			
3	장흥 상방촌B	1	층적대지	휴암(중기)	내만구연발	

탐진강유역에서 가장 많은 수의 지식묘가 분포하는 지역은 상류 일대인데 탐진강 수물지구 발굴 조사로 인해 260여기의 지식묘가 조사 되었다(표 8). 섬진강-보성강유역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지식묘군은 층적대지와 곡간평지, 구릉 사면에서 열을 지어 분포한다. 특히 앞서 살펴본 신평리와 송정리 일대에서는 무려 180기가 넘는 무덤이 발굴되어 무덤 입지와 분포, 구조적 변천상을 살필 수 있으며 주변에 인접한 주거군과의 비교를 통해 시기적 병행관계나 편년적 위치를 파악하기에도 용이하다. 묘역시설과 지식, 매장주체부를 비롯한 무덤 구조와 부장유물, 무덤의 배치 패턴을 종합하여 볼 때 크게 3단계에 걸친 변천과정을 살필 수 있다.

1단계의 지식묘는 갈두와 신평유적에서 일부 발견되는데 묘역시설을 갖춘 지하 할석형 구조이다. 그런데 보성강유역의 1단계 지식묘에 비해 묘역의 규모가 작고 적석된 석재의 양도 적은 편이다. 이는 매장주체부 주위로 넓게 묘역부를 시설하는 형태가 아닌 석관의 벽석과 토광 사이의 공간을 할석을 이용하여 석축하는 방식의 차이에 기인한 결과이다. 따라서 토광이 클수록 묘역시설도 넓게 나타나며 평면형태 또한 토광과 석축의 형태에 따라 타원형 또는 말각장방형을 띠게 되는 경우가 많다.

2단계 지식묘에서도 묘역시설이 확인되지만 대부분 작은 판석이나 할석을 평면 타원형으로 포석한 형태가 많으며 추가적으로 구획석을 시설한 사례도 발견된다. 지식은 더욱 커지며 개수도 많아져서 묘역시설과 뚜렷하게 구분되어 진다. 매장주체부는 지하 혼축형과 판석형 석관, 반지하 또는 지상 판석형 석관 등으로 다양한 구조적 변이를 보이며 송국리형 묘제의 특징인 이단 토광 구조와 다중 개석도 적잖게 확인된다.

1단계와 2단계의 지식묘는 열을 지어 선형 분포하지만 3단계에 들어서면 열의 외곽에 장축 방향을 달리하여 군집 배치된다. 3단계 무덤은 위석형 지식묘와 판석/할석 석관묘가 공존하는데 전자가 다수를 점한다. 포석형 묘역시설을 갖춘 석관묘도 확인된다. 위석형은 중소형 할석을 연결하여 둘러놓은 형식과 대형 석재 3~4개 정도를 분리하여 놓은 형태가 있는데 전자에서 후자로 변화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8. 탐진강 상류역 청동기시대 무덤 조사 현황 일람

연번	유적	수량	입지	종류 및 구조	출토유물
1	장흥 신평리 신평	34	평지	적석형/포석형 묘역, 구획석 지하 할석/혼축형 석관 지상 판석형 석관 위석형, 판석 석관묘(묘역)	일단병검, 유경석검, 석촉, 석도, 석좌, 어망추
2	장흥 송정리 가	31	구릉	적석형/포석형 묘역 지하/지상 할석/혼축/판석형 석관 위석형(묘역), 할석 석관묘	유경석검, 석촉, 석부, 어망추
3	장흥 송정리 나	25	평지	포석형 묘역 지하/반지하 할석/혼축/판석형 석관 할석/혼축/판석 석관묘 위석형(묘역), 기반식	석촉, 무문토기
4	장흥 송정리 갈두 가	61	구릉	포석형 묘역, 구획석 지하/반지하 할석/혼축/판석형 석관 할석/혼축/판석 석관묘 위석형, 기반식(묘역)	유경석검, 석촉, 석부, 관옥, 어망추, 방추차
5	장흥 송정리 갈두 나	8	구릉	포석형 묘역 지하/반지하 할석/혼축/판석형 석관 할석/판석 석관묘	석촉, 유구석부
6	장흥 송정리 갈두 다	25	평지	적석형/포석형 묘역 지하 할석/혼축형 석관 위석형(묘역), 기반식	외반구연호, 석촉, 유구석부, 어망추
7	장흥 용문리 공수평	1	평지	.	.
8	장흥 용문리 당산	4	구릉	.	.
9	장흥 단산리 외검	1	평지	지하 할석형 석관	.
10	장흥 오복리 오복동	23	평지	포석형 묘역 지하/반지하 할석/혼축/판석형 석관 위석형, 기반식, 할석 석관묘	일단병검, 유경석검, 석촉, 석부
11	장흥 대리 상방촌	5	평지	포석형 묘역 지하/반지하 할석/혼축/판석형 석관	석검, 석촉
12	장흥 대리 하방촌 가	1	구릉	기반식	.
13	장흥 대리 하방촌 나	9	구릉 사면	포석형 묘역 지하 할석/혼축형 석관 위석형, 할석 석관묘	.
14	장흥 대리 하방촌 다	10	구릉 사면	포석형 묘역 지하 할석/혼축형 석관 위석형, 할석 석관묘	곡옥
15	장흥 대리 하방촌 라	19	평지	포석형 묘역 지하/반지하 할석/혼축/판석형 석관 할석/혼축/판석 석관묘 위석형, 기반식(묘역)	무문토기

2. 중하류역

중하류역에서는 전기의 주거지가 발견되는데 탐진강-남해안지역 전기 문화의 특징을 살필 수 있는 유구유물상을 확인할 수 있다. 장흥 삼산리 화산유적에서는 모두 9기의 주거지가 조사되었는데 이중 4기(전남문화재연구원 1·2·10호, 대한문화재연구원 1호)는 전기에 해당한다(표 9). 주거지는 구

릉 능선부와 사면부에 위치하는데 유실이 심하여 전체적인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평면 세장방형과 장방형으로 구분되며 내부에는 토광형 노지와 벽구, 기둥구멍, 초석 등이 시설되었다. 전기 주거지 중 장축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전2호가 유일한데 최대 22.6m에 이른다. 나머지 3기 중 2기의 경우 11~14m 정도의 장축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전기의 주거지는 대체로 대형 (세)장방형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이중구연단사선문, 구순각목이중구연공열단사선문, 공열문 등이 시문된 발형토기와 직립구연의 호형토기가 출토되었다. 탄소연대 측정은 전1호·2호에서 검출된 시료 8개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전자 3개는 2690~2750 bp, 후자 5개는 2730~2960 bp의 범위를 보인다. 한편 도암만 일대 강진 호산 저습지유적에서도 구순각목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와 구순각목토기가 출토되었으며 보성강유역의 옥평리 주거지에서도 유사한 유구유물상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탐진강-보성강-남해안 일대 전기 문화의 성격을 살필 수 있다.

상기 삼산리 화산유적에서는 (장)방형 주거지와 송국리식 (원형)주거지도 조사되었는데 출토유물이 영성하여 시간성 파악이 어렵다. 벽구가 설치된 장방형 주거지는 중기 이른 시기로 추정되며 소형의 방형주거지와 송국리식 주거지는 이보다 후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강진 수양리유적에서는 1기의 휴암리식 방형주거지가 조사되었는데 동최대경이 구연 가까이에서 형성된 직립/내만구연 심발과 직립구연 또는 약간 외반한 호형토기만이 출토되는바 중기 이른 시기로 편년할 수 있겠다.

표 9. 탐진강 중하류역 일대 청동기시대 취락 조사 현황 일람

연번	유적	수량	입지	시기	토기	탄소연대
1	장흥 삼산리 화산(전남)	10	구릉 사면	세장방형	구순각목이중구연공열, 공열, 직립구연호	1호: 2750±50, 2690±40, 2750±40 2호: 2940±50, 2890±40, 2960±40, 2730±40, 2920±40
				장방형(중기)	외반구연호	3호: 2460±50 4호: 2490±40
				송국(중기)		7호: 2370±40
	장흥 삼산리 화산(대한)	1	구릉 사면	세장방형(전기)	이중구연단사선	
2	강진 수양리	1	구릉 사면	휴암(휴암)	직립구연호, 내만구연발	

탐진강 중류~도암면 일대에서는 소수의 지석묘만이 발굴되었다(표 10). 지석묘는 상류지역과 달리 구릉지대 또는 산기슭에 입지한다. 지석묘와 석관묘의 구조적 측면과 출토유물에 기초하여 크게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상류지역의 2단계와 3단계에 해당한다. 2단계로 볼 수 있는 포석형 묘역시설을 갖춘 지하 할석 또는 혼축형 석관 구조는 강진 수양리 지석묘군에서만 일부 확인될 뿐 대부분의 무덤들은 3단계에 해당한다. 특히 늦은 단계의 위석식 지석묘나 판석 석관묘에서는 마연장경호와 두형토기도 출토되었는데 탐진강 일대 청동기시대 무덤의 하한연대 및 점토대토기문화와의 관련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표 10. 탐진강 중하류역 청동기시대 무덤 조사 현황 일람

연번	유적	수량	입지	종류 및 구조	출토유물
1	장흥 삼산리 화산	5(11)	구릉 사면	지하 할석/판석형 석관 할석/혼축/판석 석관묘 위석형, 기반석	적색마연장경호, 유경식석검, 마제석촉
2	장흥 충렬리	12(5)	구릉	.	.
3	강진 수양리	20	구릉 사면	포석형 묘역 지하 할석/혼축형 석관 위석형(묘역), 기반석(묘역)	두형토기, 마제석촉
4	강진 영복리	17(10)	산기슭	지하 할석형 석관 할석 석관묘 위석형	마제석촉, 유구석부, 석착, 어망추

IV. 섬진강-탐진강유역 취락과 무덤의 전개

섬진강-탐진강 일대 청동기문화는 다른 권역에 비해 전기 유적의 분포밀도가 극히 낮으며 중기의 경우 방형계 주거지의 비율이 원형계에 비해 현저히 높은 양상을 살필 수 있다. 특히 타원형구덩이가 없는 비송국리계 (장)방형 주거지가 많이 발견되는 점도 하나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무덤의 경우 지석묘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이른바 송국리형 묘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대신 지석묘 상·하부구조의 다양한 변이가 확인되며 송국리형 석관묘의 고유 특징이 관찰되기도 한다. 이상 주거와 무덤에서 살펴지는 몇 가지 문화적 특징은 섬진강-탐진강유역의 지역성과 시간적 전개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취락과 무덤의 전개과정을 세부적으로 논하고, 주변지역인 금강 상류와 낙동강유역, 남해안지역 청동기시대 전기 후반~중기 후엽의 취락 및 무덤군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섬진강-탐진강유역 청동기문화의 지역적 특징을 좀 더 부각하고자 한다.

1. 주변 지역 청동기문화의 전개

B형계 휴암리-송국리식 주거 형식의 밀도, 장방형 주거지의 시간성, (묘역식) 지석묘의 분포밀도를 감안한다면 섬진강유역은 금강 상류, 낙동강(황강-남강)유역과의 문화적 유사성을 살필 수 있다. 금강 상류의 경우 송국리식 원형주거지가 많이 발견되었지만, B형계의 비율이 높으며 무엇보다 (묘역식)지석묘가 다수 분포한다. 황강 일대의 경우 B형계의 휴암리식-송국리식 주거지와 장방형주거지가 공존하며, 남강유역에서도 장방형주거지가 발견되는데 특히 B형계의 휴암리식 방형주거지의 최밀집지이다. 더불어 양자 모두 (묘역식)지석묘의 분포밀도가 높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1) 낙동강유역

낙동강 일대 산청 사월리와 하촌리, 거창 대야리 등의 취락과 합천 저포리, 거창 산포 등의 지석묘군은 섬진강-보성강유역 취락과 무덤의 시간성과 지역적 전개과정을 살피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고고학적 근거를 제공한다.

산청 사월리 취락은 주거지 중복관계와 출토토기 양상을 통해 총 3기로 설정할 수 있다. I기는 전기 후반으로 평면 (세)장방형의 대형주거지에서는 이중구연단사선, 구순각목공렬단사선, 공렬토기, 직립구연호, (경부가 긴)적색마연호 등이 출토된다. II기는 중기 중엽으로 (장)방형계 주거지와 휴암리/송국리식 주거지(B형)가 혼재하는데 일부 공렬토기와 함께 내만구연발, 천발형토기가 확인된다. III기인 중기 후반에는 (장)방형계 주거지가 주를 이루는데 다양한 경부와 구연의 외반구연호가 많이 발견된다.

한편 거창 대야리 취락의 I기는 송국리식 원형주거지(A, B형), II기는 (장)방형계 주거지로 대별할 수 있는데 전자는 내만구연과 직립/외반구연호, 천발, 후자에서는 (짧은 구연의)외반구연호 일색인바 각각 사월리 I기와 사월리 II기와 병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산청 하촌리 취락은 전기(I기)와 중기(II기·III기)로 구분된다. I기는 대형 장방형주거지로 공렬토기와 구순각목토기, 채문토기, 적색마연토기, 직립구연호, 내만/직립구연발이 확인된다. II기는 이른바 하촌리형 주거지(김병섭 2011)로 대표되는데 이중구연토기, 구순각목공렬, 공렬, 구순각목, 직립구연호, III기는 B형의 휴암리/송국리식 주거지가 혼재되며 내만구연발, 외반구연호가 출토된다. 인접한 갈전리 취락은 하촌리식 주거지가 조성된 I기와 B형 휴암리/송국리식 주거지 위주의 II기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하촌리 II기, 후자는 하촌리 III기와 동시기로 볼 수 있다.

합천 저포리의 강안 충적대지에 위치한 E지구 지석묘군에서는 8기의 무덤이 조사되었는데 세 시기(저포리 I·II·III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저포리 I기에 속하는 8호는 장방형의 묘역시설을 갖춘 지하 할석형 석관 구조로 남한지역에서 발견되는 가장 이른 형식의 지석묘이다. 적색마연토기를 비롯하여 이단병식석검, 삼각만입석촉, 즐형석도 등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전기 후반으로 비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저포리 II기는 이른바 유사석곽형(하인수 1992)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는 3~5호와 묘역시설이 설치된 지하 판석형 석관 구조의 7호인데 이중 5호는 저분구형태의 적석 묘역이 시설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II기 중 가장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저포리 III기는 지하 판석형 석관(다중개석)의 6호와 유사석곽의 1~2호인데 특히 후자는 (분리형)위석형-기반식으로서의 변천과정을 엿볼 수 있는 구조이다.

거창 산포 지석묘군 또한 충적대지에 입지하는데 하층에는 전술한 전기 역삼동식 주거지가 위치하며 상층에는 33기의 무덤이 동서방향으로 열을 지어 분포한다. 남북 5열의 지석묘는 대부분 묘역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매장주체부는 소수의 지하 할석형 석관, 지상 판석형 석관이 있으며 대부분은 유사석곽형 또는 위석형에 해당한다. 더불어 무덤열의 외곽에는 (무묘역의) 지하 석관 6기가 산발적으로 조성되어 있다. 이상 무덤의 구조 및 출토석검·석촉에 근거하여 총 3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산포 I기는 중기 전엽으로 묘역식의 지하 할석형 석관, II기는 묘역식의 지상 석관과 유사석곽, III기는 위석형과 석관묘로 중기 후엽으로 비정할 수 있겠다.

사월리 취락 구릉 정상에 위치한 무덤군은 사월리 II기부터 축조되기 시작하여 III기까지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무덤 구조(무묘역의 지하 할석형 석관과 판석형 석관)와 부장유물(석검·석촉과 적색마연토기)에 따라 사월리 I기, II기 무덤군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중기 중엽, 후자는 중기 후엽으로 편년된다. 거창 대야리 I·II기 무덤 또한 사월리 I·II기와 병행하는바 대야리와 사월리유적은 동시기 공존한 취락으로 볼 수 있겠다.

2) 금강 상류역

섬진강 일대 청동기시대 문화는 금강 중하류(공주-부여-논산) 일대 전-중기 유적의 지역적 분포를 비교해 볼 때 많은 점을 시사한다. 먼저 이들 지역에서는 타 권역에 비해 전기 취락의 분포밀도가 현저히 낮으며 전기에 속하는 무덤도 찾아지지 않는다. 전기 취락의 경우라도 중기로의 연속적인 점유 없이 단절된 양상을 보인다. 즉 섬진강과 금강 중하류역 청동기시대 취락은 전기 이래 지속적으로 성장한 결과가 아닌 중기 이후 문화의 확산 및 발전과정을 보여주는 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중기 이후 양 지역은 차별적 전개과정을 겪는다. 우선 주거지의 형식에 있어 커다란 편차가 발견되는데 송국리식 원형 주거지가 절대다수를 점하는 금강 중하류역과 달리 섬진강유역은 휴암리식 방형, 장방형주거지의 비율이 높으며 타원형 구덩이와 기둥구멍의 형식 또한 전자의 경우 A형계 위주이지만, 섬진강 일대에서는 A형계와 함께 B형계도 많이 발견되고 있다. 무덤의 형식과 분포는 두 지역 간 차별성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는 고고 자료이다. 이른바 송국리형 묘제(김승옥 2001)인 석관묘·석개토광묘·옹관묘·토광묘는 부여-공주-논산 일대에서 가장 밀집되어 있으며 다양한 세부 형식이 발견된다(김승옥 2006, 황재훈 2021). 이에 반해 섬진강 일대에서는 묘역식지석묘를 비롯하여 다양한 형식의 지석묘가 밀집분포 한다(김승옥 2007, 황재훈 2012). 물론 두 지역은 송국리식 주거 구조를 비롯한 송국리형 묘제, 지석묘, 토기와 석기 등 여러 문화요소를 공유하고 있지만 세부 형식이나 밀도에 있어서는 뚜렷한 지역적 편차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금강 중하류역과 달리 금강 상류 일대는 섬진강-보성강유역의 청동기문화와 많은 지점에서 공통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용담댐 수몰지구 발굴조사로 인해 진안 일대에서는 지석묘, 석관묘 등 총 160기 이상의 무덤이 조사되었다. 김승옥(2004b, 2007)은 I 기에서 IV기에 이르는 무덤의 형식분류와 변천과정을 실시하였다. I 기의 지석묘는 저분구형의 장방형 묘역시설을 갖춘 지하 할석형 석관으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독립적으로 분포한다. 무덤 구조를 비롯하여 이단병식 석검과 삼각만입촉, 적색마연토기 등의 출토유물을 종합하여 볼 때 전기 후반으로 편년된다. II~III기는 단독묘인 I 기와 달리 여러 무덤이 연접된 형태를 보이는데 장방형 또는 타원형 묘역시설을 갖춘 지하나 지상의 할석형/혼축형/판석형 석관 구조를 보인다. IV기에는 지석묘와 송국리형 묘제가 동일묘역내 혼재하는데 묘역시설 및 매장주체부에 있어 구조적인 혼합 양상도 관찰된다. 지석묘의 묘역시설은 소형화되며 지상의 위석식이 새로이 확인된다. 지하식 석관의 경우 이단토광이나 다중개석이 설치되기도 한다.

섬진강-보성강유역에서는 아직까지 합천 저포리 8호나 진안 안자동(전북대) 1호, 안자동(전주박) 9호, 수좌동 1호, 풍암 14호·16호와 같은 전기 후반의 무덤이 찾아지지 않는데 이 원인은 이 일대 전기 취락의 낮은 분포밀도에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중기 전엽부터는 보성강 일대를 중심으로 지석묘군이 조영되기 시작하며 중엽 이후 섬진강 상류, 탐진강-남해안 전역으로 확산된다. 그런데 이 시기 또 하나의 문화적 과급을 살필수 있는데 금강유역으로부터의 송국리형 묘제의 영향이 그것이다. 이는 전술한 금강 상류역의 무덤 변화와 궤를 같이 하는데 지석묘 매장주체부에는 이단토광이나 다중개석과 같은 송국리형 묘제의 요소 일부가 채용되며 일부 무덤군에는 송국리형 석관묘와 옹관묘가 동일 묘역에 조성되기도 한다. 중기 후엽에 이르면 오랜 기간 하부구조로서 기능했던 묘역

시설 대신 (대형의 구형)지석이 놓이게 되며 다양한 형태의 (지상식·지하식)매장주체부가 공존한다.

3) 남해안지역

상기 무덤의 변화상은 전남 남해안지역 유적에서도 공통적으로 관찰되는데 특히 보성 송곡리 지석묘군에서 그 전개과정을 잘 살필 수 있다. 지석묘 20기, 석관묘 5기 등 모두 25기의 무덤이 동일 구릉 사면에 혼재되어 분포한다. 묘역시설과 지석, 매장주체부 등 상·하부 구조와 부장유물을 기준으로 크게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송곡리 I기는 묘역시설과 다수의 지석을 갖춘 지하 할석형 석관 구조의 지석묘로 일부에서는 이단토광과 다중개석의 특징이 관찰된다. 송곡리 II기는 주로 지하 매장주체부 없이 대형의 지석만이 놓인 위석형 또는 기반식 지석묘가 다수를 점하며 지석묘 사이에 축조된 5기의 석관묘도 이 시기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 특징으로 보아 송곡리 I기는 중기 중엽, II기는 중기 후엽으로 편년 가능하다.

순천 가곡동 고지·원가곡 지석묘군에서는 4개군 25기가 조사되었다. 보성 송곡리 지석묘군의 무덤 구조 및 변천 양상과 비교할 수 있는데 시기적으로도 I·II기와 병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곡동 I기는 묘역시설과 구형 지석을 갖춘 지하 할석형 석관 위주로 일부 무덤의 매장주체부는 이단으로 굴광되어 조성되었으며 다중개석이 확인된다. 이 시기 일부 무덤에서 출토되는 공렬토기와 구순각목토기는 남해안지역 전기 무문토기문양의 늦은 하한을 잘 보여주는 자료이다. 가곡동 II기는 위석형과 석관묘가 혼재되어 있는데 전자의 경우 늦은 시기로 갈수록 괴석형의 상석 아래 대형의 구형 지석이 놓인 전형적인 기반식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가곡동 지석묘군 남서쪽에는 가곡동 취락이 위치하는데 휴암리식과 송곡리식 주거지 27기가 조사되었다. 휴암리식 주거지에서는 구순각목, 공렬토기와 직립구연발, 직립구연호형, 적색마연토기가 출토되며, 송곡리식 주거지에서는 빗질정면된 내만구연발과 외만구연호가 확인된다. 주거지 중복관계상 B형이 A형에 선행하며 토기 기형과 문양, 정면 기법을 종합하여 볼 때 송곡리식이 후행한다. 따라서 가곡동 취락 I기는 휴암리식 주거지 단계로 가곡동 지석묘군 I기, 송곡리식 주거지가 조성되는 가곡동 취락 II기는 가곡동 지석묘군 II기와 병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순천 선평리 강청유적은 충적대지에 입지하는데 주거지 11기가 조사되었다. 모두 방형계로 대부분 휴암리식이며 내부시설이 없는 장방형주거지가 2기 확인된다. 단사선, 구순각목공렬, 구순각목, 공렬문이 시문된 발형토기와 함께 경부가 긴 직립/외만구연의 호형토기가 출토된다.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층위에 따라 1단계와 2단계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장방형과 내부 타원형구덩이가 설치된 주거지(C형), 후자는 휴암리식 주거지(B형)이 확인된다. 1단계에 속하는 8호 주거지에서 직립구연의 호형토기와 공렬토기가 출토되며 2890±40 BP의 탄소연대가 얻어지는바 중기 전엽이나 전-중기 전환 시점으로 판단된다.

광양 칠성리 유적은 충적대지에 위치하는데 청동기시대 주거지 18기가 조사되었다.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휴암리식 주거지(B형) 8기, 방형계주거지 10기가 확인되는데 후자의 경우 북쪽 구역에 집중적으로 조성되어 있어 전자와의 시간적 격차를 짐작할 수 있다. 휴암리식 주거지(4-2호) 위로 방형계주거지(4-1호)가 조성된 사례가 확인되며 휴암리식 주거지에서는 공렬문이 시문된 심발형토기, 직립 또는 내만구연의 심발형, 방형계에서는 외만구연호가 출토되는바 양자의 선후관계를 살필 수

있다. 광양 용강리 기두유적에서는 24기의 주거지가 조사되었다. 휴암리식 방형과 송국리식 원형으로 양분되며 타원형수혈과 기둥구멍에 따라 세부적으로 A형, B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주거지 간 중복관계를 통해 볼 때 원형주거지가 방형계에 선행하며(3-1호 → 3호, 20호 → 20-1호)한다. 특히 송국리식 원형(B형+4주식)인 20-1호 주거지 출토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짧게 외반된 호형토기와 뚜껑이 출토되었는데 특히 후자는 주로 영산강유역 송국리식 원형주거지에서 확인되는 기종이다(황재훈 2009, 2017). 원형토기나 무문토기 저부와 구분이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으나 뚜껑의 경우 바닥이 오목하게 들어가 있으며 강한 손누름으로 인해 외저면 가장자리가 돌출되어 있어 마치 자기의 굽을 연상케 한다. 영산강유역에서는 늦은 시기에 새로운 기종으로 등장하며, 점토대토기관련 유물과도 공반되고 있는바 기두유적 또한 늦은 시기 점토대토기문화와의 관련성을 짐작해볼 수 있다.

이상 낙동강유역과 금강 상류, 남해안지역 일대 청동기시대 전기 후반~중기 후엽의 취락과 무덤군의 시기 및 세부편년, 주거형식과 토기 양상, 무덤 구조를 정리해보면 <표 11>과 같다. 전기의 역삼동식 주거지는 중기 전엽 하촌리식과 장방형계로 이어지며, 뒤이어 휴암리식 주거가 유행한다. 중기 중엽 송국리식 주거가 새로이 등장하여 휴암리식과 공존하다, 중기 후엽 휴암리식은 소멸되며 송국리식과 (장)방형계 주거지 일색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살필 수 있다. 더불어 지석묘 구조의 점진적인 변이과정도 확인할 수 있다. 전기 후반 저분구형의 적석형 묘역시설을 갖춘 지하 할석형 석관 구조는 중기에 들어서면서 점차 묘역시설의 규모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변화한다. 매장주체부의 축조재료와 방식에서도 다양한 변이가 발생하는데 특히 중기 중엽 송국리형 묘제의 확산은 지석묘 구조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중기 후엽으로 갈수록 묘역시설은 대부분 소멸되며 매장주체부의 구조 또한 간소화되면서 위석형 또는 기반식 지석묘가 다수를 점하게 된다.

표 11. 주변지역 주요 취락과 무덤군의 편년

시기	세부	입지	취락			무덤	
			유적	주거지	토기	유적	구조
전기	후반	구릉 평지	산청 사월리 I 산청 하촌리 I 거창 산포 I	역삼동식	이중구연, 구순각목, 공열, 직립구연호	진안 안자동 I 진안 풍암 I 합천 저포리 I	(적석)묘역 지하 할석형 석관
중기	전엽	평지	산청 하촌리 II 산청 갈전리 I 순천 강청 I	하촌리식 장방형 휴암리식	이중구연, 구순각목, 공열, 직립구연호	진안 안자동 II 진안 여의곡 I 합천 저포리 II 거창 산포 I	(적석)묘역 지하 할석형 석관
	중엽	평지 구릉	산청 사월리 II 산청 하촌리 III 거창 대야리 I 순천 강청 II 광양 칠성리 I 광양 용강리 I	휴암리식 송국리식	공열, 구순각목, 직립구연호, 내만구연발	진안 여의곡 II 합천 저포리 III 산청 사월리 I 거창 산포 II 거창 대야 I 보성 송국리 I	(포석)묘역 지하 관석형 석관 (무묘역) 지하 할석형 석관 송국리형 묘제
	후엽	평지 구릉	산청 사월리 III 거창 대야리 II 순천 가곡동 II 광양 칠성리 II 광양 용강리 II	송국리식 (장)방형	외반구연호, 내만구연발, 뚜껑	산청 사월리 II 거창 산포 III 거창 대야 II 보성 송국리 II 순천 가곡동 II	(무묘역) 석관, 토광 위석식, 기반식 송국리형 묘제

2. 섬진강-탐진강유역 취락과 무덤의 전개

미사리유형에 해당하는 순창 원촌 유적은 주거 구조를 비롯하여 출토유물에 근거하여 섬진강 일대 가장 이른 시기로 비정된다. 다음으로 역삼/훈암리유형 유적들은 섬진강 중류와 보성강과 탐진강 일대에서 산발적으로 발견되는데 유적유구 모두 극소수에 불과하며 문화내용 또한 지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미사리유형과의 시간적 격차나 섬진강-탐진강 일대 전기 유적 간 선후관계나 확산양상을 파악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금강 상류 일대 전기 후반부터 축조되기 시작하는 묘역식 지석묘의 시간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면 섬진강 일대 청동기시대 이른 시기는 전반과 후반으로 나눌 수 있겠다.

취락의 입지와 주거지 출토 석기를 통해 볼 때 섬진강-탐진강 일대 청동기시대 이른 시기의 생계경제는 농경과 수렵·채집, 어로 등이 복합된 체계를 보인다. 취락에서는 1~3기의 주거지로 구성된 소규모 취락으로 대형주거지는 세대공동체의 성원이 공동거주하는 주거방식(김승욱 2006)을 영위하였음을 보여준다.

중기에 접어들면 석도를 비롯한 목재가공구가 증가하는데 이는 생계경제에 있어 농경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변화상을 반영한다. 취락의 입지 변화, 주거 수의 증가, 생활영역(저장공간, 생산공간)과 매장영역의 구분, 주거 배치의 패턴화와 같은 취락 경관의 변화 또한 이를 잘 보여주는 고고학적 지표가 된다. 취락내 주거지는 대부분 중소형화되는데 이는 세대공동체의 성원이 독립거주하는 주거 방식(김승욱 2006)으로 변화하였음을 보여준다.

섬진강-탐진강 일대 무덤군은 입지를 비롯하여 군집 내 공간배치, 밀도와 수량에 있어서 시간성을 파악할 수 있다. 동시에 개별 무덤의 묘역시설, 지석, 매장주체부 축조방식, 부장유물에서도 상호 유기적 변이를 살필 수 있다. 섬진강 일대에서 아직까지 전기 후반으로 비정할 수 있는 무덤(군)이 발견되지 않아 대부분의 지석묘군 중기 이후부터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무덤군의 특징과 개별 무덤 구조, 출토유물의 시간성을 종합하여 크게 3단계에 나눌 수 있는데 이를 다시 취락의 편년과도 연결시킬 수 있는바 중기 전엽, 중엽, 후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섬진강-탐진강 일대 취락과 무덤군의 시기별 취락과 무덤군의 양상을 세부적으로 정리하면 <표 12>와 같이 요약할 수 있겠다. 전기는 전반의 미사리단계와 후반의 역삼동단계로 양분할 수 있는데 상한은 기원전 13세기, 하한은 기원전 9세기 정도로 볼 수 있다. 전기에 해당하는 취락은 섬진강 본류와 보성강, 탐진강 일대에서 산발적으로 발견되지만 아직까지 이 시기에 해당하는 지석묘군은 확인되지 않는다.

중기는 남한 여타지역과 마찬가지로 기원전 9~8세기를 상한으로 한다. 장방형계 주거지와 휴암리식 주거지가 공존하며 전기에 이어 이중구연단사선문, 구순각목문, 공열문 등이 시문된 발형토기와 직립구연호로 구성된 토기 양상을 보인다. 무덤으로는 적석형 묘역시설의 지하 할석형 석관 구조의 지석묘가 조성되기 시작한다. 중기 중엽에는 송국리식 주거 형식이 새로이 등장하면서 휴암리식과 공존한다. 발형토기의 구연부 문양은 대부분 소멸하지만 공열문이 일부 잔존하는 가운데 발과 호 모두 기형의 변화를 겪는다. 무덤의 구조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살필 수 있다. 지석묘의 묘역시설은 점차 축소되는 대신 지석은 보다 뚜렷해진다. 또한 송국리형 묘제의 영향에 의해 굴광 방식과 매장주체부 축조 재료와 기법에 있어 적잖은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중기 후엽에 들

어 다시 (장)방형계 주거 양식이 등장하며 외반구연호와 내만구연발, 뚜껑 등으로 구성된 토기 양상을 보인다. 지석묘의 묘역시설은 대부분 소멸되어 판석/할석형 또는 토광형의 매장주체부 구조가 많이 보이며, 더불어 송국리형 묘제와 함께 기반식 지석묘가 널리 유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12. 섬진강-탐진강 일대 취락과 무덤군의 편년

시기	세부	입지	취락			무덤	
			유적	주거지	토기	유적	구조
전기	13 B.C. 전반	평지	순창 원촌	미사리	돌대문		
	11 B.C. 후반	구릉	남원 고죽동 보성 옥평리 장흥 삼산리	역삼동	이중구연, 구순각목, 공열, 직립구연호	.	(적석)묘역 지하 할석형 석관
중기	8 B.C. 전엽	평지	순창 백산리 I 순천 죽내리	장방형 휴암리	이중구연, 구순각목, 공열, 직립구연호	보성 덕치리 I 보성 죽산리 I	(적석)묘역 지하 할석형 석관
	5 B.C. 중엽	평지 구릉	임실 해평 I 곡성 오지리 순천 대곡리 I 장흥 갈두 I	휴암리 송국리	공열, 직립구연호, 내만구연발	순창 무수리 I 보성 덕치리 II 보성 죽산리 II 장흥 갈두 I	(포석)묘역 지하 판석형 석관 (무묘역) 지하 할석형 석관 송국리형 묘제
	3 B.C. 후엽	평지 구릉	임실 외량2 임실 해평 II 순천 대곡리 II 장흥 신평	송국리 (장)방형	외반구연호, 내만구연발, 뚜껑	임실 외량2 임실 윤정리 장흥 갈두 II 장흥 신평	(무묘역) 판석/할석형 석관, 토광 위석식, 기반식 송국리형묘제
	2 B.C.						

V. 맺음말

지금까지 섬진강-탐진강 일대 청동기시대 유적의 현황과 분포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마지막으로 이 지역의 문화적 특징을 전-중기, 중기 이후로 구분하여 다시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타 지역과 달리 전-중기 유적 간 계기적이고 연속적인 발전과정이 감지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장흥 삼산리 화산 유적 일례를 제외하면 전기와 중기 취락 간 시공적 중복을 설정하기는 어렵다. 무덤군 또한 그러한데 주변지역인 금강이나 낙동강유역 지석묘군의 경우, 전기 후반 이래 중기 전엽 또는 중~후엽까지 누대에 걸쳐 지속적으로 조영된다. 그러나 섬진강~보성강, 탐진강유역 일대 지석묘군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관찰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전기에 조성된 무덤은 확인되지 않으며 모든 무덤들은 중기 전엽 이후 축조되기 시작한다.

따라서 섬진강~탐진강 일대 청동기문화는 소수 전기 미사리, 역삼/혼암리유형유적의 산발적인 분포후 시공적 단절을 보이다가 중기 역삼동유형과 휴암리 물질문화의 결합된 형태로 등장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둘째, 중기 이후 방형, 장방형, 휴암리식, 송국리식 주거지와 같은 주거 구조, 직립구연/외반구연

호, 직립구연/내만구연 발, 구순각목공렬문, 이중구연단사선문, 구순각목문 등의 토기 양상이 나타나며 세부 토기 기형과 정면 방식에서도 다양한 변이가 관찰된다. 이 같은 물질문화의 다양성은 시간적 변이와 지역적 변이가 결합된 결과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취락 유적에서는 휴암리와 송국리식 주거지 간 선후관계를 인정할 수 있지만 방형계 주거지의 경우 중기 전 시기에 걸쳐 확인되는바 시간적 위치를 확정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세부 지역별, 유적별 주거지의 중복관계를 비롯하여 출토 토기의 문양과 기형, 정면기법을 종합한 편년 작업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아울러 중기 지석묘군에서도 다양한 무덤 형식, 배치패턴, 유물 양상이 확인되는데 크게 두 차례에 걸친 획기적인 변화가 관찰된다. 특히 중기 중엽 지석묘에서 감지되는 구조적 변이(판석형 석관, 이단토광, 다중개석 등)와 농·공구의 부장, 군집단위의 변화는 금강유역 송국리문화의 영향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 상술한 물질문화 특징들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청동기시대 섬진강-탐진강 유역은 여러 지역적 문화 특질이 서로 맞물린 문화적 혼합지대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특히 중기에 들어 이 같은 성격은 더욱 두드러지는데 역삼동유형, 휴암리 물질문화, 송국리유형, 점토대토기문화 등 여러 문화 요소가 혼재된 점이지대적 성격을 보인다. 금강 상류와 낙동강유역으로부터 지석묘 문화가 유입되며, 다시 전북 서부 및 영산강유역, 남해안지역으로 전파된다. 또한 하촌리형이나 휴암리 B식, 구순각목토기, 공렬토기 등의 문화요소는 낙동강유역으로부터 유입되며, 이후 금강과 영산강유역으로부터 송국리식 원형 주거문화를 비롯하여 토기 제작 기술, 매장주체부 축조 기법 등을 수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문화적 현상은 백두대간과 호남정맥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형적 요인으로 인해 섬진강 일대가 타 지역에 비해 문화적 폐쇄성이 강하다는 그간의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있는 고고학적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바 크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 김규정, 2013,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취락 연구,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규정, 2019, 섬진강유역 청동기시대 유적 일고찰, 호남고고학보62
- 김병섭, 2011, 남강유역 하촌리형주거지에 대한 일고찰, 경남연구4
- 김승옥, 2001, 금강유역 송국리형 묘제의 연구, 한국고고학보45
- 김승옥, 2004a,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편년과 사회변천, 한국고고학보51
- 김승옥, 2004b, 용담댐 무문토기시대 문화의 사회조직과 변천과정, 호남고고학보19
- 김승옥, 2006, 송국리문화의 지역권 설정과 확산과정, 호남고고학보24
- 김승옥, 2007, 분묘자료를 통해 본 청동기시대 사회조직과 변천, 계층사회와 지배자의 출현, 한국고고학회
- 박덕재, 2012, 보성강유역 지식묘문화에 대한 연구, 원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재호, 1992, 송국리유형의 검토, 영남고고학11
- 이근옥, 1993, 보성강유역 집자리의 성격과 변천, 한국상고사학보14
- 이동희, 2002, 전남지방 지식묘 사회와 발전단계, 호남고고학보15
- 이영문, 1999,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묘제연구의 성과와 과제, 호남고고학보9
- 이영문, 2002, 한국 지식묘 사회 연구, 학연문화사
- 이종철, 2015, 섬진강 본류역 청동기시대 취락의 분포와 특징, 선사와 고대46
- 조진선, 2004, 전남지역 지식묘의 연구 현황과 형식변천 시론, 한국상고사학보43
- 조진선, 2008, 탐진강유역 지식묘의 형식과 변천, 호남고고학보30
- 하인수, 1992, 영남지방 지식묘의 형식과 구조, 가야고고학논총1,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 황재훈, 2006, 전남지역 지식묘의 형식과 변천, 한국상고사학보53
- 황재훈, 2009, 전남지역 선송국리~송국리단계의 인구분포 변동, 호서고고학20
- 황재훈, 2010, 호서-호남지역 송국리식 토기의 시·공간성, 한국고고학보77
- 황재훈, 2012, 섬진강유역 지식묘의 전개과정, 한국상고사학보75
- 황재훈, 2017, 영산강유역 송국리식 토기의 특징과 변천, 호남고고학보56
- 황재훈, 2021, 호서지역 청동기시대 무덤의 특징과 전개, 호서고고학48